



# 한국틴스타

2009년 11월  
제20호

www.teenstar.or.kr

## 틴스타의 천사들

배미애 마리진 수녀

착한목자수녀회 소속 / 한국틴스타 대표

최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처음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 변호사의 이야기다. 노예제도는 과거에 있던 어떤 일 정도로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시절, 그것이 옳지 않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한 변호사의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물론 앞에 나선 사람은 변호사 혼자였지만 그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 준 사람들은 그 변호사와 그가 하는 일에 함께한 수호천사가 아니었을까? 수호천사는 우정의 이름으로, 또 아내의 이름으로 그를 도왔다. 노예제도를 폐지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그들이 이뤄낸 일치와 나눔이 없었다면,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틴스타도, 아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어떤 일에 뛰어들 때도, 그 일을 돕는 수호천사들이 있다. 그들은 그 일의 가치를 믿기에 선한 지향으로 수호천사의 날개를 달

고 온다. 2004년 틴스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틴스타에는 참으로 많은 친구와 은인들이 천사의 날개를 펼치며 다가왔다. 그들은 이 시대의 왜곡된 성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도구로 틴스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보급하는 데 앞장서며 도왔다. 그들이 없었다면 과연 틴스타 프로그램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었을까?

틴스타를 만나면서 어느새 틴스타 안에서 살게 된 나와 모든 틴스타 가족들은 이 일이 중요하고 옳은 일임을 믿기에 그렇게 살며 전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고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수호천사들을 미처 몰라보거나,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은 때때로 교사의 이름으로, 학생의 이름으로, 후원자의 이름으로, 소리 없는 기도의 빛으로 다가온다. 그들은 틴스타가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성의 의미를 회복하여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돕는다. 틴스타를 통해 '기쁜소식'을 전달하는 누구나 틴스타의 소중한 천사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오늘도 그 천사들과 함께 희망과 기쁨의 씨를 뿌린다.

## 재교육으로 더욱 풍요로워진 틴스타

이영주  
틴스타 교사

청소년들의 쉼터에서 지내면서 여러 종류의 많은 모임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 중은 근히 기다려지는 모임으로 틴스타를 빼놓을 수가 없다. 특별히 해마다 총결산하는 정기 평가회 및 교사 재교육은 그런 갈증을 채워주는 데 정말 소중한 모임이 아닐 수 없다.

남산 자락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서 다시 한 번 깊게 느낀 것은 틴스타가 굳세게 지켜나가고 있는 가치와 원칙들이 여전히 더없이 소중하고 그야말로 보석같이 아름답다는 사실이다. 그 아름다운 원칙을 가슴에 새긴 다른 틴스타 선생님들을 만나 진솔한 나눔을 하게 된 것은 마치 여럿이 함께 마라톤이라도 뛰는 듯 가슴을 벅차게도 하였다. 특히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에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 틴스타 수업을 하신 어느 수녀님의 진지한 나눔은 같은 쉼터의 상황이라 그런지 나에게겐 너무나 힘이 되었다. 이렇듯 학교에서든 쉼터에서든 틴스타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틴스타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 마리진 수녀님의 진복팔단에 대한 강의는 이런 틴스타의 가치가 복음에 뿌리를 둔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주었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고향인 프랑스의 아르스에서 열린 제6차 틴스타 국제회의의 내용들은 이런 가치를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결코 나 혼자 아니며 이 일이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교육을 마치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다시 아이들과 기쁘게 틴스타 수업을 이어가게 되었다. 금요일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우리 쉼터,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까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을 마주하는 내 마음도 설레기만 하다. 틴스타 수업으로 함께 사는 아이들을 새롭게 만나면서 2% 부족했던 아이들

과의 관계를 마저 채웠다면 맞갖은 표현일 지 모르겠다. 사실 쉼터에 살다보면 건드리 지 말아야 할 비밀들이 서로에게 있기에 다 른 틴스타 교사를 초대해서 틴스타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기 를 내어 아이들과 직접 틴스타 수업을 하게 되었다.

“선생님, 저는 돈다발에 원 없이 굴러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물지도 않았는데 한 아이가 불쑥 던진 말에 할 말을 잃은 기억이 있다. 그 이후 시작된 틴스타 수업... 몇 주 뒤 어느 날 자기 전에 잠깐 밤인사가 있었는데 그 날의 주제는 ‘감사’였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 아이가 “저는 생명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하고 말한 그 순간 ‘아이야, 나는 너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구나! 할 수 밖에...’

쉼터의 한 녀석이 어느 날 친구네 집엘 다녀와서는 호들갑이다. ‘선생님, 제 친구는 글씨 배란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두 시까지 틴스타에서 배운 것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저 이 곳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요...’ 아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내심 너무 가슴이 벅찼고 잠시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

님께 호들갑을 떠는 장면이 연상되며 무릎 을 쳤다. ‘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로구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이들, 죽을 때까지 부모를 만날 가망이 별로 없는 절박한 상황에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뼈아픈 비밀이 많은 아이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당당히 누려야 할 ‘건강한 비밀 - 성’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이 계시기에 아이들은 분홍색 수첩에 빗금을 쳐가며 오늘도 행복을 꿈꾼다. ‘선생님, 저 시집갈 때까지 이 수첩을 계속 적어 가져갈 거예요. 너무 재미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야. 그렇고말고, 책임질 수 있고말고, 아무렴~~’



# 안녕하세요~.

이연경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저 신고 1학년 10반에 김연경이라고 해요.

선생님! 내일이면 마지막이라고 해서 편지 써요.~π\_π

틴스타 수업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슬퍼요 π\_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생리 오랫동안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고 엄마랑 걱정도 많이 했는데 후속상담하면서 초경부터 불규칙한 생리와 그것으로 한약 먹었던 거 다 말하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많이 안심 했었어요~. 방학 전에 생리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또 상담했는데 선생님이 병원에 갖다오라고 하셔서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갑자기 생리가 나와서 기뻐어요. 개학하고 나서 상담할 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도 같이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고민들도 말하고 상담받을 수 있었던 게 진짜 영광스러웠어요.~.

아!! 그리고 틴스타 수업하러 갈 때마다 마음 편하게 가서 재미있게 수업했어요! 저 이

제까지 틴스타 수업시간에 즐거나 탄탄한 적 없어요.....ㅋㅋ

영상 같은 거 볼 때도 집중해서 잘 보고 선생님이 가끔 내용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들도 잘 맞춰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ㅋㅋ

에효~. 그런데 이제 내일이 마지막...

π\_π

이제까지 너무 즐거웠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많은 것들 항상 기억할게요!!

첫날인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핸드폰 번호로 가끔 궁금하거나 상담할 거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

그러니까 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 안 계셔도 매일매일 점액관찰기록표도 잘할게요!

좋은 기억,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π\_π

2009. 9. 9

PS: 저 9월16일에 생일이예요.....ㅋㅋㅋ



성경숙 수녀님과 상명여고 학생들



송명희 선생과 신월청소년문화센터 틴스타 학생들



2009년 제6차 틴스타 국제회의 - 프랑스 아르스



2009년 한국틴스타 정기평가회 및 교사 재교육



2009년 한국틴스타 정기평가회 및 교사 재교육



## 성탄 새해 메시지

복된 성탄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해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잠을 자지도 못한 채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은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지치게도 만드는 우리의 일상은  
귀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작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 2009년 상반기 진행현장

분류	장 소	담당교사	시작일	지역
학교	하비에르중학교(중)	정혜경 선생	2009년 11월 13일	서울
	인천 동방중학교(중)	조정옥, 김경수, 김희영, 안동석(남), 김기환(남)선생	2009년 9월 8일	경기도
	용인 대지중학교(중)	주설령, 이회정, 황옥선, 양은미 선생	2009년 9월 2일	
	안양 근명여자중학교(중)	김명숙, 고경미, 박소윤, 이영숙, 김영숙, 최영희 선생	2009년 9월 3일	
	구미 송정여자중학교(중)	김령희, 이승현 선생	2009년 9월 10일	경북
	왜관 순심중학교(중)	전수영, 백민주, 조화수(남) 선생	2009년 9월 14일	
	대구가톨릭대학교(총)	장숙희 수녀	2009년 9월 9일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총)	서은주 수녀	2009년 9월 9일	
성당	서울대학교 장안동성당(총)	정은주 수녀, 김정성(남) 선생	2009년 11월 1일	서울
	서울대학교 지양동성당(총)	배 마리진 수녀	2009년 10월 18일	
	수원교구 태평동성당(교)	김태인 선생	2009년 9월 12일	경기도
	의정부교구 백석동성당(총)	이정현 선생	2009년 9월 16일	
	대전교구 판암동성당(교)	양현정 선생	2009년 5월 9일	
시설	꿈사리공동체(중)	이영주 선생	2009년 9월 4일	서울
	신월청소년문화센터(중)	송명희 선생	2009년 10월 27일	
	군위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중)	나영훈 신부, 서은주(남)수녀	2009년 9월 20일	경북
기타	하남 동화읽어주는 엄마모임(총)	김태인 선생	2009년 10월 19일	경기

## 2009년 상반기 종료현장

분류	장소	담당교사	시작일	종료일	지역
학교	제주 신성여자고등학교	고경심, 권경애, 금미경, 김효주, 김선희, 김정민 선생	2009년 3월 25일	2009년 9월 18일	제주
시설	부천 새날공부방	안병욱, 조은조 선생	2009년 7월 14일	2009년 8월 31일	경기도
	서울 유프라시아의 집(중)	이승윤, 강명주 선생	2009년 6월 20일	2009년 9월 10일	서울
	조치원 Y 성폭력상담소(총)	유남민 선생	2009년 5월 18일	2009년 9월 17일	대전
기타	서울대학교 생명위원회(총)	김민지 선생	2009년 7월 15일	2009년 9월 30일	서울

※ 중 - 중학교 프로그램 고 - 고등학교 프로그램 총 -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미 - 미혼모 프로그램

# 알림 Notice



## ☆ 2010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안내

제68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본부

- 주 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10년 1월 4일 ~ 7일
- 장 소 : 혜화동 가톨릭교리신학원

제69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진주

- 주 최 : 진주개양중학교
- 기 간 : 2010년 1월 11일 ~ 14일
- 장 소 : 창원 젊음의 집

제70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대구

- 주 최 : 틴스타 대구지부
- 기 간 : 2010년 1월 19일 ~ 23일
- 장 소 : 미정

제71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제주

- 주 최 : 틴스타 제주지부
- 기 간 : 2010년 1월 25일 ~ 28일
- 장 소 : 미정

## ☆ 제68차 한국틴스타 본부 워크숍 접수 안내

- 일 시 : 2010월 1월 4일(월) 오전 9: 00 ~ 7일(목) 오후 5: 30
- 장 소 : 서울 혜화동 가톨릭교리신학원
- 접수기간 : 2009년 12월 3일(화) ~ 11일(화) (당일 접수 불가)
- 참 가 비 : 15만 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0-998645(예금주: 한국틴스타)

☆ 2009년 한국틴스타 정기평가회 및 재교육이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 속에 종료되었습니다.  
 힘써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0년에도 함께하시어 풍요로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 ☆ 연말 소득공제(기부금 영수증)안내

연말 소득공제 영수증이 필요하신 후원자께서는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 국민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 신한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306-01-261337
- 외환은행 (예금주: 한국틴스타) : 611-016668-535

발행일 : 2009년 12월 1일

발행처 :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519호

전 화 : 02)755-2629

발 행 인 : 배마리진 수녀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otmail.com

팩 스 : 02)727-2243